

# 9경기 연속 안타... 이정후 '떨떨'

### MLB 마이애미전 3-1 승리 견인 김하성은 시속 165km짜리 안타



18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파크에서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규시즌 마이애미 말린스와 원정 경기에서 이정후가 9경기 연속 안타를 때렸다. 이날 타율을 2할7푼까지 높이면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연합뉴스

이정후가 9경기 연속 안타를 때렸다. 안타 2개를 친 이정후는 타율을 2할7푼까지 높이면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이정후는 18일(한국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파크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MLB) 마이애미 말린스와 방문 경기에서 4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시작은 좋지 않았다. 이정후는 두 번째 타석까지 마이애미 선발투수 트레버 로저스의 공을 공략하지 못했다. 이정후는 1회 첫 타석에서 시속 93.9마일(약 151km)짜리 강속구를 밀어쳤다. 타구는 3루수에게 잡혔고 타율은 2할5푼3리로 떨어졌다. 이정후는 4회에 들어선 두 번째 타석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안타는 세 번째 타석에서 나왔다. 이정후는 1-0으로 앞선 6회 유격수 앞 내야 안타를 때렸다. 이정후는 2-1로 앞선 8회 상대투수 앤서니 벤더를 상대로 좌전 안타를 쳤다. 마이애미와 3연전 첫 경기(16일) 이후 이를 만에 멀티 히트였다.

이정후는 후속타자 호르헤 솔레르의 안타와 맷 채프먼의 2루타로 홈을 밟아 샌프란시스코의 세 번째 득점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3-1로 이겨 시즌 8승(11패)을 챙겼다. 샌프란시스코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9승10패)를 한 경기 차로 쫓았다.

김하성도 3경기 연속 안타를 쳤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5번타자로 출전한 김하성은 밀워키 브루어스와 방문경기에서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김하성은 타율을 2할2푼7리로 올리며 7경기 연속 출루를 기록했다.

첫 타석에서 내야 플라이로 물러난 김하성은 4회 2사 1루서 좌전 안타를 때렸다. 김하성은 밀워키 선발 브라이스가 던진 커터를 힘껏 때려 타구 속도가 무려 시속 102.5마일(약 165km)짜리 안타를 기록했다. 그러나 샌디에이고는 0-1로 진 탓에 3연승을 마감했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2위(11승10패)를 유지했다.

한편 김하성 동료인 일본인 투수 다르빗슈 유는 목 근육 통증으로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샌디에이고 마이크 실트 감독은 "큰 부상은 아니어서 장기간 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 '홈런왕' 최정 수난사 20년간 사구 330개 매주 한 개꼴 맞은 격

프로야구 공인구의 무게는 143g 내외에 불과하지만 시속 140km가 넘는 속도로 던지면 흥기로 변한다. 투구에 맞는 타자는 수 t에 달하는 충격을 받고 몸을 다친다. 피멍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뼈가 부러지고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도 예사다. 공에 맞아 사망하는 일도 있다. 1920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유격수 레이 채프먼은 뉴욕 양키스 칼 메이스가 던진 공에 머리를 맞고 세상을 떠났다.

프로야구 선수는 고통, 공포와 싸우는 직업이다. 공에 맞는 아픔을 지난 20년 동안 1주에 한 번꼴로 경험한 선수가 있다. KBO 리그 개인 통산 홈런 신기록을 눈앞에 둔 SSG 랜더스의 김민재(37)이다.



17일 오후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4 KBO 리그 KIA 타이거즈와 SSG 랜더스의 경기 1회 말 2사에서 SSG 최정(가운데)이 KIA 선발 크로우의 공에 맞고 괴로워하다가 1루까지 나갔지만 결국 교체되었다. 연합뉴스

2005년 SK 와이번스(현 SSG)에 입단한 최정은 유독 많은 사구를 기록했다. 2005년 2개의 사구를 시작으로 매년 20번 안팎으로 몸에 맞는 공에 시달렸다.

최정의 사구 기록은 독보적이다. 17일까지 통산 2184경기에서 330번 투구에 몸을 맞았다. 6.6 경기당 한 번꼴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 것이다. 그의 기록은 KBO 리그를 넘어 세계 주요 프로리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MLB의 최다 사구 기록은 휴이 제닝스의 287개이고, 일본프로야구에선 기요하라 가즈히로가 세운 196개가 최다다. 최정은 일찌감치 일본, 미국 기록을 뛰어넘었다. 최정이 사구를 많이 기록하는 이유는 특유의 타격폼 때문이다.

그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홈 베이스에 붙어서 스윙하는 최적의 타격폼을 완성했다. 최정은 이 타격폼으로 리그 최고의 타자로 올라섰으나 베이스에 붙어서 타격하는 바람에 몸쪽 공을 피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 바이에른 뮌헨 챔스 4강 진출... 김민재 교체 출전

### 아스날과 UCL 8강 2차전 1-0 승



18일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8강 2차전 바이에른 뮌헨(독일) vs 아스널(잉글랜드) 경기에서 김민재(가운데)가 수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인처럼 김민재도 교체 출전하며 뮌헨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4강 진출에 기여했다.

뮌헨은 18일(한국시각)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UCL 8강 2차전에서 아스널(잉글랜드)을 1-0으로 이겼다. 뮌헨은 1차전 2-2 무승부에 이어 2차전 1-0 승리로 합계 점수 3-2로 앞서 4강에 진출했다. 2019-2020 시즌 UCL 우승팀 뮌헨은 4년 만에 준결승에 올랐다.

뮌헨은 후반 들어 파상공세를 펼쳤다. 하와엘 게레이루의 헤더와 레온 고레츠키의 슈팅이 아스널 골대를 때렸다. 아쉬움을 삼킨 뮌헨은 후반 18분 오주야 키미히

헤더에 힘입어 결승골을 얻었다.

후보로 벤치를 지키던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는 1-0으로 앞선 후반 31분 누사 이르 마지라위와 교체됐다. 김민재는 왼쪽 수비를 맡아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고 축구 통계업체 풋몌는 김민재에게 평점 6.1을 부여했다.

이강인은 하루 앞서 교체출전하며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의 4강 진출을 이끌었다. UCL 4강 무대를 경험한 한국 선수는 이영표와 박지성, 손흥민이 있다.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는 영국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와 8강 2차전에서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 승리(4-3)로 4강에 올랐다. 레알 마드리드는 네 시즌 연속 4

강에 오르며 2년 만에 우승컵을 노린다.

첫 골은 레알 마드리드의 차지였다. 호드리구는 전반 12분 오른쪽 페널티 구역에서 온 패스를 슈팅했고 골키퍼 선방에 막혀 흘러나온 공을 오른발로 선제골을 넣었다. 맨체스터시티 반격도 매서웠다. 더브라위너는 후반 31분 오른발 슈팅으로 레알 마드리드 골망을 흔들었다.

전광판에 새겨진 득점(1-1)은 연장전까지 바뀌지 않았다. 맨체스터시티는 승부차기에서 먼저 웃었다. 훌리안 알바레스가 첫 골을 넣을 때 레알 마드리드 루카 모드리치는 실축했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 골키퍼 안드리 루닌은 맨체스터시티 베르나르두 실바와 마테오 코바치치의 슈트를 모두 막았다.

승부차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4-3 승리로 끝났고 지난 시즌 우승팀 맨체스터시티는 4년 만에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